

전봉관의 온고지신

“일하는 사람, 다 같이 잘살자”

금광왕 이종만의 자영농 육성 사업

1937년 5월 12일, 서울 남산정(지금의 중구 남산동) 천진루 여관에서 대동광업주식회사 창립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동광업은 자본금 300만 원(현재 가치 3,000억 원), 광구 면적만 4억 평에 달하는 거대 금광회사였다. 대동광업의 대표취체역(대표이사)은 바로 전날 자신이 소유했던 영평금광을 동조선광업주식회사에 155만 원을 받고 매각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금광왕 이종만이었다.

1930년대 조선은 ‘황금광시대(黃金狂時代: 황금에 미친 시대)’로 불릴 만큼 금광 개발이 활발했다. ‘황금의 땅’ 한반도는 해마다 수십 톤의 황금을 토해냈다. 해마다 수십 명의 ‘금광 나리깁(成金: 졸부)’이 출현한 반면, 수만 명의 금점꾼들이 금을 찾아 해마다 폐인으로 전락했다. 쉰 셋의 나이에 조선 재계(財界)에 혜성같이 등장한 이종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베일에 감춰진 중년신사였다. 기자회견장에서 이종만은 뜻밖의 ‘깜짝 선언’을 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영평금광을 155만 원을 받고 동조선광업주식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제가 바쁘신 여러분을 이곳까지 오시게 한 것은 매각 대금 중 50만 원을 출연해 신설할 ‘재단법인 대동(大同)농촌사’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동농촌사는 50만 원의 자금으로 전 조선의 중앙과 동서남북 다섯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 집단농지를 매입할 것입니다. 재단이 소유한 집단농지는 경작자를 선발해 골고루 분배한 후 영구히 경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재단은 경작자에게 매년 수확량의 3할을 ‘의무금(義務金)’으로 징수해 집단농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데 쓸 것입니다. 의무금은 30년 한도 내에서 징수하고 그 후로는 경작자가 자신이 수



28번 실패를 딛고 29번째 시도에서 조선 굴지의 금광회사를 일군 이종만

확물을 모두 가지게 할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계획이었다. 당시 소작료는 법적으로 50% 이상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60~70%씩 징수하는 악덕 지주도 적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작료를 30%만 받겠으며, 30년이 지나면 아예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이종만의 선언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것도 지주의 당연한 권리로 소작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농지를 전 조선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부금조로 한시적으로 ‘의무금’을 걷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종만은 경작지의 명의만큼은 농민에게 넘기지 않고, 영구히 재단이 보유하겠다고 했다.

“경작자가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잡혀 어렵게 확보한 경작지를 잃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경작자의 명의를 재단이 소유하면 자작농의 생활 안정을 영구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농민의 유토피아, 대동농촌사

하루 이틀 생각해 즉흥으로 발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숙고 끝에 나온 정교한 계획이었다. 그런 원대한 계획을 발표한 사람이 농촌운동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운동가도 아닌 조선 최대의 금광회사를 소유한 자본가라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었다. 이종만은 거금을 투자해 자영농 육성 사업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전 조선 인구의 8할이 농사에 종사하는 만큼 농촌의 생활 수준은 곧 조선인의 생활수준을 의미합니다. 농민의 빈궁은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광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금전을 만지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조선 농촌의 갱생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자고 이런 계획을 한

《전봉관의 온고지신》에서는 식민 통치로 고통받고 암울했던 시절, 아픔 속에서 태동되던 근대화의 씨앗, 그 안에 숨겨졌던 우리 경제 이야기를 들춰냅니다. 다양한 경제 사건과 인물, 스캔들을 통해 현재 직면한 문제의 뿌리를 찾고 해결의 실마리를 탐색해 봅니다.

것입니다. 처음 광산을 시작할 때도 돈을 잡으면 꼭 농촌 사업을 해보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종만은 1885년 울산군 대현면 용잠리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을 뿐 정규학교를 다니며 신학문을 배우지는 못했다. 스무살에 사업에 뜻을 두고, 부산으로 나가 어물상을 차렸다.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옥도정기(沃度丁幾 : 요오드링크)’의 원료인 미역을

매집했다가 전쟁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미역 값이 폭락해 도산했다. 고깃배를 빌려 대부망 어업에 나섰다가 풍랑을 만나 파산했고, 고향에서 대흥학교를 설립했다가 신문화를 배척하는 동네 노인들의 반발로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중석 광산에 뛰어들어 한때 큰돈을 만지기도 했지만, 종전 후 중석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도산했고, 금강산으로 옮겨가 목재상을 차렸다가 수해를 입어 도산했다. 서울에서 고학당을 차려 고학생 운동을 벌였지만, 자금 부족으로 4년 만에 문을 닫았고, 강원도에 들어가 금광 개발에 나섰다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빈털터리가 되었다. 스무 살에 어물상을 차린 후 수십 살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무려 28번 사업을 벌여 모조리 실패했다.

이종만은 수십 살에 29번째 사업인 영평금광에서 노다지 금맥이 터져 30년 만에 처음으로 성공을 맛보았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꼭 큰돈을 벌여 ‘일하는 사람은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8번 실패하고 29번 일어서기도 힘든 일이지만, 30여 년 피땀으로 일군 재산을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아낌없이 쓰기는 더 어려운 일이다.

대동광업은 해마다 200여 만 원의 순이익이 생기는 알짜기



[왼쪽] 농촌 이상향의 건설자, 이종만의 인물, 조광 1937년 7월호
[오른쪽] '황금강 시대', 조선일보 1932년 11월 29일자

업이었다. 이종만은 대동광업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영농 육성을 위한 ‘대동농촌사’, 자영 광업가 육성을 위한 ‘대동광산조합’, 문화 사업을 위한 ‘대동출판사’ 등 사업체를 늘려나갔다. 1937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평양 숭실전문학교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폐교되자, 이종만은 120만 원을 들여 숭실전문학교의 자산을 인수해 대동공업전문학교(김일성대학 공학부의 전신)를 설립했

다. 이로써 대동콘체른(그룹)은 5개의 기관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대동콘체른의 앞날은 순탄하지 않았다. 대동콘체른의 5개 사업체 중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는 대동광업 한 곳뿐이었다. 대동광업의 수익으로 나머지 사업체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엄청난 적자를 메우다 보니 대동콘체른의 기초는 해가 갈수록 부실해졌다. 애초 계획에 없던 대동공전을 설립한 이후 대동콘체른의 부실은 가속화되었다.

28전 29기

대동콘체른은 해마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채가 쌓여갔고, 급기야 1943년부터 차례로 도산했다. 대동출판사는 대동공전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 매각되었고, 파산 상태였던 대동광업은 총독부의 금광 강제정리사업 과정에서 해체되었다. 대동농촌사는 농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상농촌의 꿈을 접었다. 1944년 대동공업전문학교는 평남도청에 인수돼 공립으로 전환되었다.

이종만은 스물아홉 번째 실패와 함께 환갑을 맞았다. 이종만은 결국 실패한 경영자로 남게 되었지만, ‘일하는 사람은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의 꿈은 한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圖]



전봉관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근대문학을 공부하던 중 그 시대 사회·문화의 역동성과 매력을 발견, 근대문화 연구에 뛰어 들었다. ‘30년대 조선을 거닐다(조선일보)’, ‘옛날 잡지를 보러가다(신동아)’를 연재했으며 《황금광시대》, 《경성기담》, 《력키경성》, 《경성자살클럽》 등의 저서가 있다.

junbg@kaist.ac.kr